

KOBA 2025
3층 Hall C

방송·전송 및 미디어관

주요 전시 업체

네이버 클라우드, 동양디지털, 비주얼리서치, QNAP & Seagate, 제마나소프트, 라온 테크놀로지, 삼아지브이씨, Evoto, 캐논코리아, 블루닷, 니콘이미징코리아,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KBS, MBC, SBS, EBS, CBS 등

3층 Hall C에서는 다양한 영상 및 디스플레이 시스템이 전시되었고, 지상파 방송사 부스도 선보였다. 특히, 전시장 입구의 네이버 클라우드는 KOBA 첫 전시로 자사의 솔루션을 홍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전했다. 니콘은 부스를 넓혀 RED 카메라를 전시하며, 사진에 이어 영상

산업에 진출하는 회사의 비전을 알렸으며, 창립 30주년을 맞은 비주얼리서치는 부스 전면이 대형 LED 월을 통해 자사의 제품을 알렸다. 전시장 곳곳에서 여러 용도의 LED 월을 찾아볼 수 있었고, 중국 업체도 다수 참가하여 각종 영상장비를 전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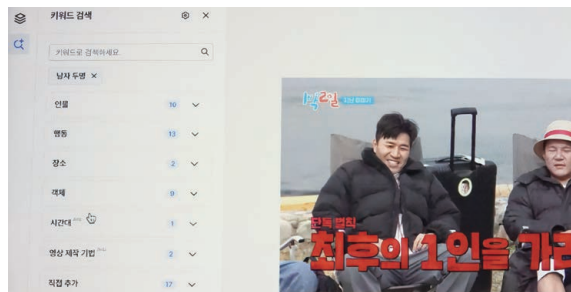


네이버 클라우드

네이버 클라우드는 이번 KOBA 전시에 처음으로 부스를 마련하고, 'AX로 실현하는 스마트 미디어 워크플로우'를 주제로 미디어 제작 전반을 혁신하는 클라우드 기반 워크플로우를 선보였다. 네이버 클라우드는 첫 참가인 만큼 현장에서 실시간 데모와 기술 세미나도 함께 진행하며 관람객들의 이목을 끌었다. 이번 전시에서 특히 주목받은 부분은, 차세대 미디어 AI 서비스인 **Media AI Understanding(MAIU)**의 최초 공개이다. 현재 국내 주요 방송사 및 파트너사를 대상으로 비공개 베타 서비스를 운영 중이며, 오는 6월 정식 출시를 앞두고 있다.



MAIU 시연 장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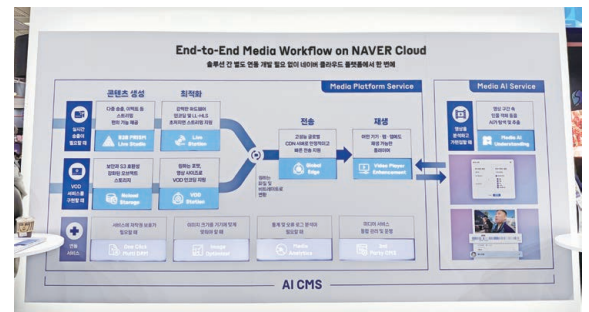


MAIU 검색 화면

MAIU 서비스는 영상 속 장면을 자동 분석해 텍스트 검색만으로도 원하는 클립을 손쉽게 찾을 수 있는 기술을 기반으로 한다. 인물 정보와 메타데이터 탐색, 음성 인식 및 자동 자막 생성, 맥락을 반영한 구간 분할 기능 등을 통해 영상 검색 효율은 물론, 편집 시간까지 획기적으로 단축시킨다는 점이 큰 강점이다. 반복적이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클립 탐색과 컷 편집 작업이 자동화됨에 따라 콘텐츠 제작자 입장에서는 창작과 기획에 집중할 시간을 더 확보할 수 있

게 된다. MAIU의 정식 출시 이후 실제 방송 현장과 플랫폼에서 어떤 혁신을 가져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또한 MAIU는 AI 기반 영상 분석을 넘어서, 네이버의 검색 플랫폼과의 높은 연동 가능성도 기대되는 부분이다. 네이버 클라우드 인프라에서 구동되는 이 서비스는 생성된 메타데이터가 텍스트 기반 검색에 최적화되어 있어, 향후 네이버 TV, NOW, VIBE 등 네이버의 다양한 미디어 플랫폼과 연동 시 자동 클립 추천, 하이라이트 노출, 자막 생성 등 다양한 기능에 자동 적용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미디어 워크플로우 on Naver Cloud



Naver Cloud 부스 전경

MAIU 서비스 공개 이외에도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상에서 LIVE, VOD 서비스에 상관없이 미디어 서비스 제공 영상의 제작부터 인코딩, 서버, 송출, 통합 관리까지 워크플로우 전체를 효율화하는 미디어 워크플로우 솔루션과 대용량 미디어, 백업, 아카이브까지 뛰어난 확장성과 가용성, 데이터 내구성을 보장하는 스토리지인 Ncloud Storage도 소개되었다.

동양디지털

동양디지털은 독일 **LAWO** 사의 오디오 콘솔을 중심으로 방송 제작 환경에 특화된 솔루션을 소개했다. 주요 모델로는 방송 및 라디오용으로 적합한 컴팩트형 ‘mc² crystal’, 모듈형 구조로 유연한 구성이 가능한 ‘mc² diamond’, 대형 스튜디오와 중계 환경에 적합한 고성능 콘솔 ‘mc² 56’이 전시되었다. 관계자는 “LAWO 콘솔은 커스터마이징 가능한 디지털 인터페이스와 IP 기반 RAVENNA 프로토콜을 통해 원격에서도 안정적인 운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동양디지털 부스

또한 LAWOW의 통합 관리 플랫폼 ‘HOME’에 대한 소개도 함께 진행했다. HOME은 오디오 콘솔, 비디오 스위처, 라우터 등 방송 장비를 하나의 시스템에서 통합적으로 제어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설계된 중앙 집중형 플랫폼으로, 네트워크상의 장비를 자동으로 검색 및 등록하고, 실시간으로 설

정을 조정할 수 있다. 장치 구성, 스트림 라우팅, 채널 매핑, 매개변수 조정, 라이선스 관리 등 방송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주요 기능을 통합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와 유사하게 실시간 비디오전송 및 모니터링을 위한 **Haivision**의 통합 시스템과 제품도 함께 소개하며, 향후 방송 인프라가 단일 플랫폼을 통한 중앙 제어 방식으로 전환될 것이라는 기술적 흐름과 전망을 제시했다.



mc² diamond



mc² crystal



mc² 56



LAWOW Home



Haivision 전송 장비 전시

비주얼리서치



창립 30주년을 맞이한 비주얼리서치

비주얼리서치는 방송용 CG 제작 소프트웨어 및 자막 시스템 분야에서 국내외 방송사들의 신뢰를 받아온 기업으로, 이번에 새로운 AR 기반 그래픽 시스템의 프로토타입을 처음 공개했다. 전시된 제품은 **Karisma 3** 엔진을 기반으로 SLAM 방식의 카메라 트래킹 기술을 활용해, 실제 카메라의 위치 정보를 실시간으로 인식하고 이에 따라 가상의 스튜디오 공간과 카메라 시점이 동기화되는 구조로 설계되었다. 이를 통해 실시간 환경에서도 시선의 일관성과 공간감이 유지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디스플레이로 실시간 송출되는 그래픽을 통해 주식 뉴스, 홈쇼핑, 날씨 정보 등 다양한 영역에 특화된 비주얼리서치 솔루션의 강점도 엿볼 수 있었다.



비주얼리서치 Karisma AR

부스 후면에서는 기존 문자 그래픽 솔루션인 **Tornado 3**, **Tornado NX** 등 주요 제품군 소개도 진행되었다. Tornado 3는 실시간 3D 문자 그래픽 시스템으로, 이미 다수의 방송국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직관적인 2D/3D 제작 도구를 통해 오퍼레이터가 실시간 방송 중에도 안정적으로 그래픽을 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Tornado NX는 Final Cut Pro, Premiere Pro 등 주요 NLE와 연동이 가능하며, PSD와 AI 파일을 불러와 3D 그래픽으로 매핑하는 기능도 제공된다. 이를 통해 유튜브나 온라인 콘텐츠 제작 등 후반 편집 환경에서도 활용도가 높고, 별도의 장비나 소프트웨어 없이 기존 제작 시스템에 바로 통합할 수 있어 작업 효율성과 기존 CG 자산 재사용 측면에서도 이점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기존의 2D 그래픽 시스템에서 실시간 AR 및 3D 환경까지 확장 가능한 비주얼리서치의 제품 구조와 제작자 편의를 고려한 기능적 발전을 확인할 수 있었다.



Tornado 3, Tornado NX 등 제품군 시연



제머나소프트

디지털 미디어 관리 플랫폼 전문 기업 제머나소프트는 자사의 주요 솔루션들을 중심으로 부스를 구성했다. 미디어 자산 관리, 보도 정보, 콘텐츠 배포, 아카이브, 자동 송출, 라디오 방송 등 제작 및 운영 전반을 포괄하는 시스템들이 나뉘어 전시됐다.

proxima는 제머나소프트의 미디어 자산 관리시스템(MAM)으로, 올해는 AI 기반 메타데이터 분석 기능의 정확도와 추출 속도가 개선된 버전이 공개되었다. 영상에서 주요 키워드, 음성 텍스트 변환(STT), 장면 구분 등의 정보가 자동 생성되며, 해당 데이터를 자막 제작이나 검색에 연동할 수 있도록 설계돼 있었다.

이번 전시에서 새롭게 선보인 **IMArchive**는 장기 보관을 위한 계층형 스토리지 솔루션이다. SSD나 HDD 등 일반 스토리지에 저장된 데이터를 LTO 테이프 기반 스토리지로 자동 이관하며, LTFS 표준 기반으로 구현되어 있어 외부 호환성과 운영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다. 웹 기반 인터페이스에서 테이프 입출력 상태와 아카이브 이력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클라우드 기반 콘텐츠 관리시스템 **MYMY**는 소형 MAM 솔루션으로, 수백만 건 이상의 미디어 데이터를 파일 형태에 상관없이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구성된다. 영상, 이미지, 오디오, 자막 등 다양한 콘텐츠를 범주화하고, 각종 검색 조건으로 빠르게 찾아볼 수 있는 기능이 탑재돼 있었다.

G-SAM은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여러 채널로 콘텐츠를 자동 배포하고, 통계를 수집해 시각화하는 시스템이다. 실시간 반응 분석, 재생 목록 관리, 번역 자막 처리 등 콘텐츠 운영을 위한 다양한 기능이 통합되어 있으며, API 연동을 통해 각 플랫폼에 자동 등록이 가능하다.



개발 중인 보이는라디오 확장 기능 'Bora'

보도정보시스템 **zodiac**는 뉴스 큐시트 편성, 프롬프트 연동, 음성 인식 기반 스크롤링 등을 포함한 통합 제작 환경을 제공한다. 뉴스 기사의 작성, 송고, 큐시트 관리, 송출에 이르는 전 과정을 하나의 시스템 내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구성돼 있으며, 스마트폰 등 모바일 환경에서도 접근할 수 있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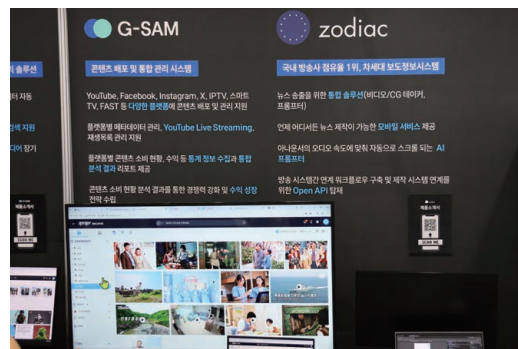
TALOS 또한 이번 전시에 처음 공개됐다. TALOS는 자동 방송 송출시스템(APC)으로, 제머나소프트의 Channel In a Box(CIB)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한다. 스케줄 제어, 장비 연동, 영상-CG 송출, 스트리밍 출력을 하나의 하드웨어 내에서 통합 운용할 수 있으며, 다양한 출력 포맷과 다채널 모니터링 기능을 갖춘 것이 특징이다. SDI 기반 전통 방송 환경뿐 아니라, 유튜브 라이브 등 스트리밍 환경에 맞춘 RTMP, SRT 송출도 지원된다.

라디오 방송 제작 및 송출을 위한 통합 시스템인 **WinnerS**도 전시됐다. WinnerS에는 편성표 관리, 콘텐츠 자동 송출, 오디오 파일 관리, 광고 송출 제어 등의 기능이 통합되어 있으며, 인터페이스를 통해 송출 설정, 재생 큐 관리, 광고 스케줄 설정 등이 가능했다. 방송사 규모나 운용 방식에 따라 다양한 규모와 형태로 커스터마이징할 수 있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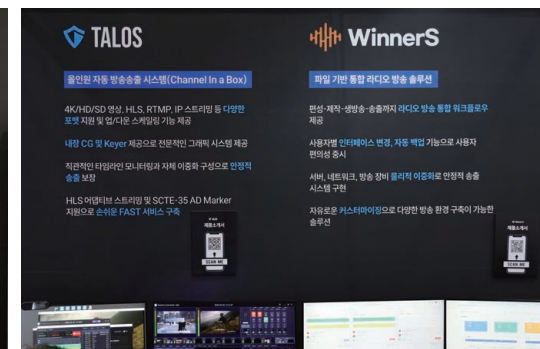
또한, 개발 중인 시스템 'Bora'는 시스템 외부 솔루션을 통하지 않고, WinnerS 시스템 내부에서 바로 보이는라디오 제작/송출이 가능하게끔 한다.



Proxima, IMArchive, MYMY 전시 구역



G-SAM과 Zodiac 전시 구역



TALOS와 WinnerS 전시 구역

QNAP & Seagate

콘텐츠 관리 솔루션 기업 맑은기술과 스토리지 전문 기업 QNAP은 KOBIA 2025에서 공동 부스를 구성해, 스포츠 영상 자동화 및 고성능 NAS 기반 콘텐츠 제작 환경을 선보였다. 현장에서는 맑은기술의 AI 기반 스포츠 아카이빙 솔루션 'KeyFlow Live'와 QNAP의 Thunderbolt 4 기반 NAS 장비 (TVS-hx74T 시리즈, TBS-h574TX)를 결합한 실시간 콘텐츠 제작 데모가 운영됐다. 이 환경에서는 영상 수집부터 AI 분석, 하이라이트 생성, 웹 기반 편집, NAS 저장 및 협업까지의 전체 워크플로우가 구현되었다.

KeyFlow 시리즈와 QNAP NAS 연동,

실시간 AI 기반 하이라이트 제작

맑은기술은 이번 전시를 통해 'KeyFlow Live'의 실시간 AI 분석 및 자동 하이라이트 기능을 시연했다. 스포츠 영상 분석과 편집 자동화가 핵심인 이 솔루션은, NAS를 통한 빠른 데이터 저장과 연결돼 효율적인 협업 환경을 제공한다. 웹 기반 편집 UI를 통해 팀원 간의 협업 및 리뷰도 가능하다. 이와 함께 전시된 'KeyFlow ADAMS'는 QNAP NAS 단독으로 구성 가능한 All-in-One 콘텐츠관리시스템이다. 영상 수집, 관리, 배포, 아카이브까지 단일 플랫폼에서 처리 가능해, 소규모 제작 환경이나 교육기관에서 특히 주목을 받았다. 또한 방송 제작 환경에 최적화된 MAM 시스템 'KeyFlow Enterprise'도 함께 소개되었으며, 대용량 고해상도 파일을 처리하는 데 적합한 QNAP NAS와 연동하여 엔터프라이즈급 콘텐츠 자산 관리가 가능함을 강조했다.

QNAP, Thunderbolt 4 기반

NAS로 고속 영상 편집 환경 제공

QNAP은 TVS-hx74T 시리즈와 TBS-h574TX NASbook을 통해 고속, 고용량, 고안정성 NAS 솔루션을 소개했다.



큐냅과 씨게이트, 맑은기술의 공동 부스



QNAP TVS-hx74T 시리즈

TVS-hx74T는 12세대 인텔 코어 프로세서, Thunderbolt 4 포트, NVMe SSD 캐시, ZFS 기반 운영체제를 지원하며, 최대 154TB 스토리지 확장이 가능하다. TBS-h574TX는 13세대 인텔 하이브리드 아키텍처 기반으로, 초소형 폼팩터에 5개의 M.2/E1.S SSD 슬롯, Thunderbolt 4, 10GbE, 2.5GbE 인터페이스를 갖춰 현장 촬영과 후반 제작을 연결하는 NAS 솔루션으로 활용될 수 있다. 두 장비 모두 실시간 4K/8K 영상 편집, 고속 파일 전송, 트랜스코딩 작업에 적합하며, 크리에이티브 워크플로우 전반을 지원한다. ZFS 기반의 QuTS hero 운영체제를 통해 데이터 무결성 보호, 스냅샷, 자동 복구 기능도 제공한다.

이번 공동 전시는 콘텐츠 자동화 기술과 고성능 스토리지의 통합이 영상 제작 환경에 어떤 시너지를 제공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실제 사례로, 제작자와 방송 관계자들 사이에서 높은 관심을 받았다.

맑은기술 솔루션과 연동한 QNAP 편집 환경



라온 테크놀로지



라온 테크놀로지 부스

라온 테크놀로지는 작년에 이어 플래그십 디지털 IP 인터컴 **GENIE**를 전시하였다. GENIE는 업계 최초의 유무선 통합형 완전 디지털 IP 인터컴으로, IP 키패널 스테이션과 IP 벨트팩, 무선 인터컴 및 단방향 IFB 무선 수신기를 모두 단일 네트워크 시스템 내에서 연동할 수 있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이에 대형 방송 제작, 공연, 이벤트 등 대규모 현장에서의 통합 운영과 시스템 확장성 측면에서 좋을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GENIE는 5GHz 주파수 대역을 사용하여 최대 30개 주파수 채널 옵션을 제공함으로써, 혼잡한 RF 환경에서도 안정적인 운용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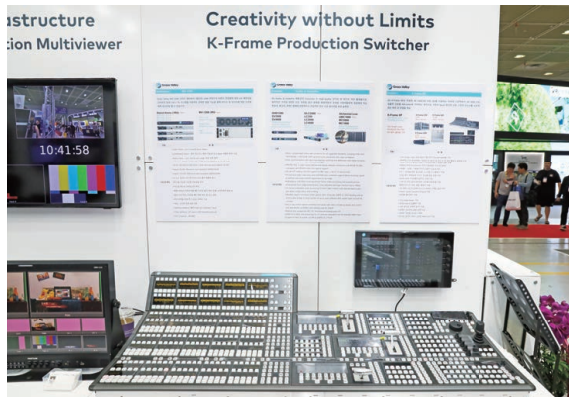
DIGITAL IP 인터컴 시스템 GENIE의 제품 전시

삼아지브이씨

삼아지브이씨는 실시간 방송 제작부터 XR, NLE 솔루션까지 다양한 분야의 기술을 선보이며 관람객들의 관심을 끌었다. 이번 전시에서는 Grass Valley, Zero Density, LiveU, EDIUS 등 주요 파트너사의 제품을 한 자리에서 소개하며, 방송 제작 전반에 걸친 연계성을 보여주었다.



Grass Valley AMPP



Grass Valley K-Frame XP 스위처

부스의 중심에는 **Grass Valley**의 AMPP가 있었다. 이 플랫폼은 인제스트, 라이브 제작, 송출까지 방송 제작의 전 과정을 클라우드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설계된 SaaS 기반 솔루션으로, 사용자는 어디서든 로그인해 콘텐츠 송출, 전환, 녹화 등 주요 작업을 원격으로 수행할 수 있다. 관계자는 “스튜디오에 장비가 없어도 집이나 외부에서 라이브 방송 제작이 가능한 구조”라며, 스포츠 중계나 긴급 상황 등에서의 실용성을 강조했다.

함께 전시된 K-Frame XP 비디오 스위처는 12G-SDI 싱글 스트림 및 IP 환경을 모두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4K UHD/HD 신호를 Full Raster 방식으로 처리하여 입출력 수나 기능의 감소 없이 고품질 영상을 구현한다. 쿼드 링크 방식 대

신 12G-SDI 싱글 포트 구조를 채택해 케이블링을 단순화하고 전송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인 점이 특징이다. 또한, 다양한 입출력 구성, 모듈형 프레임, 유연한 조작 패널 호환을 통해 실제 제작 환경에서의 운용 효율성을 극대화했다.



Zero Density 및 PANTHER 부스

Zero Density는 Unreal Engine 기반의 XR/AR 스튜디오 구현 솔루션을 시연했다. 카메라 트래킹과 실시간 합성을 통해 가상 공간 내 조명 반사, 그림자, 줌 동작까지 실제 환경에 가까운 연출이 가능하며, 이미지 기반 키잉 기술을 통해 머리카락 등 섬세한 영역까지 정확하게 추출할 수 있었다. 실제 그림자를 합성 화면에 반영하는 기능도 구현되어, 전반적으로 사실적인 스튜디오 구현에 적합한 시스템임을 보여주었다. 해당 부스 왼편에는 아나모픽 시네마 렌즈, **PANTHER**사의 X-Type 카메라 그립 장비도 소개되었다.



LiveU 전시



EDIUS 및 caton 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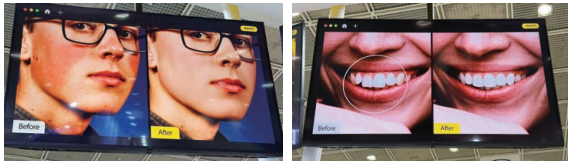
현장 중계 분야에서는 **LiveU**의 다채널 영상 송출시스템이 시연되었다. LiveU는 자체 개발한 LRT 프로토콜을 활용해, 여러 통신사의 유심을 동시에 결합하여 송출 안정성을 극대화한다. LiveU의 제품은 특히 내구성과 고온 환경에서의 운용 능력이 뛰어나, 각종 선거 방송 및 야외 촬영 현장에서 실용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부스에는 LU800 제품이 전시되었다.

EDIUS 11은 방송 제작 환경에 맞춘 편집 기능들이 강화된 버전으로 소개되었다. 자막 템플릿 시스템과 음성 인식 기반의 자막 자동 생성(STT), 클로즈 캡션 지원 등은 실제 방송사 워크플로우에 적합한 구성으로, 빠르고 직관적인 작업 흐름을 제공한다. 또한 서드파티 플러그인을 기본으로 탑재하고, 렌더링 없이 실시간으로 적용되는 시각 효과, 다양한 트랜지션과 색 보정 기능 등도 함께 개선되며, 다양한 편집 환경에서 활용될 수 있는 범용성을 갖추었다. 이외에도 Belden의 케이블, Caton의 IP 기반 방송 솔루션, Utah Scientific의 IP Hybrid Router 등 방송 인프라에 필요한 제품들도 함께 소개되었다.



Utah Scientific 전시

Evot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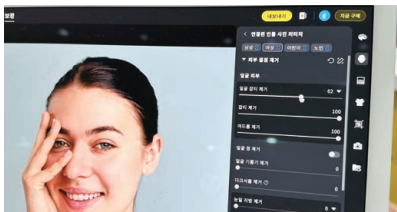


Evoto 부스

Evoto는 작년에 이어 AI 기반 사진 보정 솔루션으로 일반 관람객부터 전문가까지 많은 관심을 보였다. 이 솔루션은 복잡한 전문 프로그램의 반복적인 수작업을 줄여 리터칭 작업 시간을 단축해 창의적인 작업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제공한다. AI를 이용한 Evoto의 사진 보정은 크레딧 단위를 사용하여 1크레딧으로 사진 1장을 보정할 수 있으며, KOBA 부스 등록자에 한해 무료 50 크레딧을 사용할 수 있는 혜택을 제공했다.

AI 기반 사진 보정 솔루션

처리할 수 있는 AI 기반 SaaS 소프트웨어를 소개했다. 이 솔루션은 피부 결함, 안경 반사광, 잔머리, 이중 턱, 입술 각질, 옷 주름, 배경 잡티 제거, 미소 생성, 배경 합성 등의 기능을 제공한다. 또한 자연사진의 경우 각 오브젝트를 구분하여 인식해 다양한 효과와 보정, 합성이 가능하다.



AI 기반 인물사진 보정



AI 기반 자연사진 보정 및 합성

블루닷



블루닷 부스

AI 기반 영상 처리 기술 기업 블루닷은 커스텀(Custom) AI 화질 개선 서비스를 선보였다.

블루닷은 가톨릭평화방송의 '평화방송 TV 개국 30주년 특집 - 고백(Go Back) 1995' 프로그램 제작에 참여하여 최초로 커스텀 AI 화질 개선 서비스를 적용한 바 있다. 부스에서는 실시간 슈퍼레졸루션, 커스텀 슈퍼레졸루션에서 영상의 화질 개선과 업스케일링 예시를 보여줬고, 인지 화질 최적화 전시에서는 원본 영상을 압축해도 화질이 동일한 아카이빙, 스트리밍을 위한 AI 솔루션을 시연했다.

일반적인 AI 영상 화질 개선 서비스는 다양한 영상 테마와 구성에 범용적으로 적용되어 화질을 개선할 수 있도록 설계된 인공지능 모델을 사용하는 반면, 반면에 블루닷의 커스텀 AI 영상 화질 개선 서비스는 고객의 영상 콘텐츠 특성과 요구사항에 맞추어 인공지능 모델을 최적화하며, 고객이 제공한 영상 데이터를 인공지능 모델 학습에 활용한다. 지난해부터 고전 명작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며 '내 이름은 김삼순', '커피프린스 1호점', '궁', '풀하우스'가 4K 업스케일링을 통해 대중에게 다시 공개됐다.



'고백(Go Back) 1995'의 블루닷 커스텀 AI 화질 개선 서비스 적용

캐논코리아



캐논코리아 부스

토탈 이미징 기업 캐논코리아는 첨단 광학 기술과 AI 기반 영상 솔루션 등을 선보이며, 방송·영상 산업의 미래를 제시했다. 특히, 체험존과 세미나를 통해 관람객들에게 실질적인 경험과 다양한 정보를 제공했다.

메인 스튜디오 존

실제 방송·영화 스튜디오와 유사하게 재현하여, 시네마 EOS 카메라와 PTZ 카메라를 활용한 촬영 환경을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특히 스포츠 콘텐츠, 라이브커머스에 특화된 수직 영상 촬영이 가능한 EOS C400, C80, R50 V 등으로 구현 공간이 마련되었다.



메인 스튜디오



PTZ 스튜디오 존

최상위 모델인 CR-N700부터 엔트리 모델 CR-N100까지 다양한 PTZ 카메라를 전시하여, 고화질 영상과 원격 제어 기능을 확인할 수 있었다. 관람객들은 원격 카메라 컨트롤러 RC-IP1000, RC-IP100 등을 통해 카메라를 직접 조작해 보며 큰 관심을 보였다. 리모트 카메라 콘트롤 애플리케이션(RCCA)을 통해 복수의 카메라를 최대 9대까지 동시에 모니터링하며, 자동 추적 및 자동 루프 기능의 조작과 설정을 효율적으로 제어할 수 있다.



PTZ 스튜디오 존



원격 카메라 컨트롤러 RC-IP100

버티고 존

AI 기반 차세대 영상편집 시스템인 '버티고(VVERTIGO)'와 EOS R5 C를 연동하여, 효율적인 영상 제작 과정을 시연하였다. 이번 전시회에서 맥에서 구동 가능한 버전을 선보였다.



EOS R5C X VVERTIGO 존



맥용 편집기

또한 **컬러 매칭 애플리케이션**을 선보였다. 이는 다른 기종의 카메라로 촬영되는 결과물을 실시간 컬러 매칭과 보정이 가능한 소프트웨어 솔루션으로, 간단한 조작으로 기기별 색상을 콘트롤 해 볼 수 있었다.



컬러 매칭 애플리케이션



니콘이미징코리아

니콘이미징코리아는 3년 연속 참가하며 자사 계열사인 미국 영상장비 회사 RED, 영국 법인의 로봇 회사 MRMC와 함께 국내 최초 3사 협업 부스를 선보였다. 작년에 성사된 RED 인수 소식을 이제 KOBA에서도 접할 수 있게 된 것이었다. 이로써 니콘은 사진 촬영을 넘어 영상 제작까지 아우르는 사진·영상 전문 브랜드로서의 입지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니콘은 이번 KOBA에서 총 5,000여 명 이상의 관람객이 현장을 방문했고, 작년과 비교해 영상 전문가와 사진 영상 전공 대학생들의 방문이 크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다른 기종의 카메라 촬영



전시 공간을 더욱 확장한 니콘이미징코리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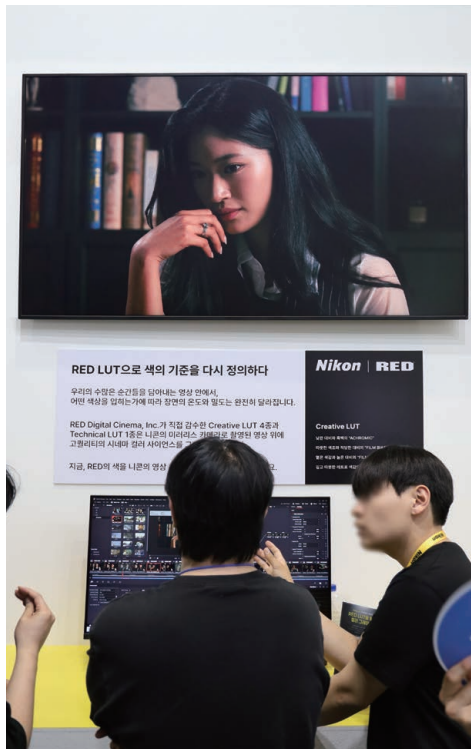
전년보다 확장된 이번 부스는 관람객이 직접 체험하고 비교할 수 있는 인터랙티브한 공간으로 구성됐다. **마운트 & NIKKOR 체험존**은 최신 제품인 Z5II를 비롯해 니콘의 인기 미러리스 Z 시리즈와 렌즈군을 시연해볼 수 있는 공간으로 꾸며졌으며, **RED LUT & 픽처 컨트롤존**에서는 니콘만의 영상 색보정 기술 및 이미지 톤 조절 시스템인 RED의 LUT(Look Up Table)과 픽처 컨트롤을 직접 체험해볼 수 있었다. 또한, **Z시네마 체험존**에서는 니콘과 RED, MRMC 제품으로 직접 촬영해 볼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됐다.

RED&MRMC 존을 통해 할리우드 영화 제작에 사용되는 RED 시네마 카메라의 핵심 기능과 독보적인 색감 표현력

을 테스트해볼 수 있으며, MRMC 인공지능 기반의 로봇 카메라 시스템이 피사체의 움직임을 자동으로 감지하고 추적하며 촬영하는 첨단 기술을 직접 체험해볼 수도 있었다.



니콘 부스에서 만날 수 있었던 RED 카메라



RED LUT & 픽처 컨트롤존



최신 제품인 Z5II



RED&MRMC 존에서 체험해볼 수 있었던 RED 시네마 카메라들, 오랜만에 KOBIA 전시장에서 볼 수 있어 반가운 마음이 들었다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부스는 이전과 달리 회원사인 MBC, SBS, EBS, CBS의 전시 공간으로 채워졌다. 각사의 방송기술과 주요 홍보 아이টে를 선정하여 정말 오랜만에 KOBA에서 관람객을 맞이하는 모습이었고, 지상파 방송사의 기술력을 알리는 시간이 되었다.



MBC

MBC는 세계 최초의 방송·통신 융합형 정밀 측위 서비스인 **MBC RTK**를 소개하였다. MBC RTK는 LTE 라우터나 별도 통신망 없이 전국 200여 개 이상의 기준국 인프라를 활용해 통신료를 최대 99%까지 절감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주목을 받았으며, 2~3cm 이내의 오차 범위를 지원하는 고정밀 위치 정보를 제공해 측량, 드론, 자율주행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고 있다.

이번 전시에서는 2025 NAB Show에서도 관심을 끌었던 MBC RTK의 해외 상용 서비스 모델인 eGPS(Enhanced GPS) 기반 솔루션이 함께 소개되었으며, 세계 최초로 u-blox X20 모듈을 탑재한 RTK 수신기 BMP-3000, 기준

국용 전문장비 MRP-3000, 그리고 eGPS 기술을 실제 적용한 드론 측량 전문기업 시스테크의 제품이 전시되어 실용성과 상용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MBC RTK 부스



전시된 MRP-3000과 BMP-3000

또한 부스 한편에는 MBC의 AI 전략 자회사 도스트일레븐(Dost Eleven)이 참가해, 맞춤형 All-in-One AI 기반 영상 제작 솔루션 **Video Scoover**를 선보였다. 이 솔루션은 영상 프리뷰, 자막 제작 및 번역, 아카이브 기능을 통합 제공하며, AI 음성 및 화자 인식, 동영상 인덱싱 등 다양한 기능을 통해 방송 제작 과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도스트일레븐의 Video Scoover



SBS는 싱글레어/캐스트닷에라 등과 협력해 실험방송에 성공한 지상파 UHD 데이터 캐스팅 서비스를 전시했다. 이 **BROADSPAN 플랫폼**은 4K 영상 등 대용량 데이터를 수많은 접속자에게 동시에 제공할 때, 폭증하는 인터넷 트래픽 일부를 지상파 UHD 방송망으로 우회시켜, 더욱 안정적인 스트리밍 서비스를 가능하게 하는 기술이다. OTT 서비스 중 대폭적인 트래픽이 발생하는 글로벌 이벤트나 주요 경기에서 이를 분산하는 효과와 함께 영상전송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기술로 서울 실증을 마쳤고, 서울·수도권 상용화를 추진 중이다. OTT 서비스 업체와 지상파 방송사 모두 이익을 얻는 구조로, TV 서비스뿐만 아니라 데이터캐스팅, 모빌리티 서비스까지 확장 가능성도 추진 중이다.



UHD 데이터 캐스팅 서비스를 전시한 SBS



BROADSPAN 대시보드 전시



CBS는 '레인보우 함께 걷기', '데이터 기반 선곡 통계 서비스' 등 두 가지 서비스를 소개했다. 모두 오디오 콘텐츠의 특성을 바탕으로 청취 경험을 능동적으로 확장하려는 시도다. 시선을 화면에 얹매지 않는 라디오는 사용자의 주변 환경과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는 매체다. CBS는 이 연결의 가능성을 걷기와 맥락 중심의 선곡으로 풀어냈다.



CBS 부스에서 전시된 두 가지 서비스



함께 걷기 이벤트 참가자들로 붐비는 CBS 부스

레인보우 함께 걷기

CBS 부스에서 가장 많은 관심을 끈 기술은 '레인보우 함께 걷기'였다. 이 서비스는 라디오 방송을 들으며 걷는 이용자의 걸음 수를 측정하고, 목표를 달성하면 선물 응모권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모바일 앱에서는 연령대별 평균 걸음 수, 걷기를 통한 건강 수명 증가 추정치 등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제공한다. 5월 7일 정식 공개된 이 서비스는, 공개 당일의 회원가입자 수가 기존 하루 평균 신규 가입자의 10배를 넘어서고, 앱 체류 시간 역시 유의미하게 증가하는 등 긍정적인 초기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고 한다. 한편, CBS는 함께 걷기 서비스를 홍보하기 위해 하루 두 차례(11시, 16시) 현장 이벤트를 열었다. 이벤트 시간대의 CBS 부스 앞은 참가자들이 인산인해를 이뤘다. 서비스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실감하게 했다.

데이터 기반 선곡 통계 서비스

함께 전시된 '데이터 기반 선곡 통계 서비스'는 음악 편성 데이터를 시각화해 보여주는 도구다. 이를 통해 특정 날의 선곡 기록, 지난달 같은 날 또는 작년 오늘의 플레이리스트, 해당 곡이 송출된 당시의 날씨 등을 쉽게 검색할 수 있었으며, 눈·바·폭염 등 기상 조건에 따라 청취자가 긍정적으로 반응한 곡을 기반으로 플레이리스트를 만들어 주는 기능도 함께 시연됐다.



EBS는 인공지능 기반 맞춤형 학습 플랫폼 **단추플러스**를 중점적으로 소개하였다. 단추플러스는 학생 개별 학습 데이터를 기반으로 난이도와 정답률을 분석하여 확률 기반 문항 추천, DKT(지식추적모델) 기반 학습 예측, 온라인 클래스 및 화상 튜터링 서비스 연계 기능 등을 제공하는 EBS의 AI 고도화 학습 플랫폼이다. 특히 문항별 벡터 임베딩을 활용한 유사 문항 추천, 실제 풀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정답 예측 모델, 사용자 등급 기반 문항 난이도 조절 기능 등 동적인 학습 환경을 구현하였다.

사용자가 풀지 않은 문항, 확률이 높은 문항, 중간 난이도 문항 등을 구분해 제시하며, 학습자가 자신의 이해 수준에 맞춰 효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강의 자막과 스크립트, 수강 메타 정보까지 포함된 다층적 콘텐츠 구성 구조와 문항별 정답률·유형·단원 연계 데이터 기반의 정교한 학습 진단 기능도 함께 제공된다. 이와 더불어 럭키 뽑기 이벤트, 할인 쿠폰, 감성 스티커 등 다양한 오프라인 홍보물과 함께 EBS Play+ 구독 홍보도 이루어졌다.



EBS 단추플러스 전시



AI 직캠부터 ATSC 3.0까지 미래형 콘텐츠 환경 선보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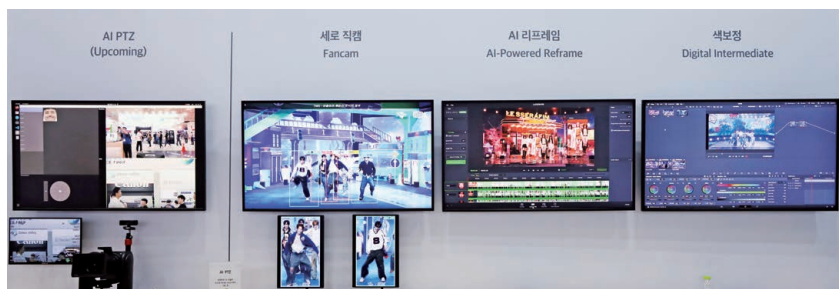
KBS는 방송기술의 미래를 보여주는 대규모 전시 부스를 운영하며, 인공지능, UHD, 입체음향 등 최신 기술이 적용된 다양한 콘텐츠 제작·전송 솔루션을 소개했다. 이번 부스는 미디어연구소, 제작기술국, 송신플랫폼국, UHD KOREA 등 KBS 내 다양한 부서가 참여해 구성되었으며, 참관객들은 실제 체험을 통해 방송 기술의 발전 방향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



KBS 부스

AI 직캠 스튜디오 'VVERTIGO'로 경험하는 8K 기반 제작 워크플로우

KBS 미디어연구소는 'VVERTIGO' AI 직캠 스튜디오를 통해 8K 촬영부터 색보정, 편집까지 이어지는 AI 기반 영상 제작 워크플로우를 선보였다. 참관객들은 체험존에서 버티고 솔루션을 통해 고속 렌더링 및 리프레이밍되어 AI 직캠 콘텐츠로 완성되는 전 과정을 직접 확인하며 콘텐츠 제작 방식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다.



VVERTIGO 시연



AI 화질 개선 전시



실시간 객체 탐지 솔루션 및 통신 자동화 솔루션

실시간 자막과 객체 탐지, 지능형 방송환경 구현

미디어연구소는 또 다른 전시로 AI 다국어 자막 싱크 시스템을 소개했다. KBS 자체 개발 음성-자막 동기화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AI 번역을 활용한 다국어 자막 자동 생성 및 정밀 싱크 기능이 시연되었다. 서울시립대학교와의 협업으로 선보인 전시에서는 버티고의 차세대 연구 과제인 'AI-PTZ' 프로젝트가 처음 공개되었다. 이 솔루션은 두 대의 카메라를 연동해 넓은 피사체 범위를 정밀하게 추적하며, 직캠 기반 기술과 아카이브 학습형 AI 프레임링 엔진을 결합해 멀티캠 제작 환경에서 자동 추적과 자연스러운 앵글 전환을 구현함으로써 기존 PTZ 솔루션과 뚜렷이 차별화된 기술력을 보여주었다.

ETRI와 함께 선보인 AI 아바타,

제작기술국의 로봇 카메라

ETRI는 2D 이미지·영상만으로 입체 아바타를 생성하고, AI 기반 리타게팅을 통해 실제 인물의 움직임을 입체화하는 기술을 소개했다. 이는 디지털 휴먼, 가상 앵커, AI 캐릭터 등의 구현에 활용될 수 있는 차세대 콘텐츠 기술로 주목받았다.

한편 KBS 제작기술국은 'Cam BOT' 로봇 촬영 시스템을 시연했다. 이 장비는 이론 로봇 플랫폼 위에서 피사체의 움직임과 박자를 인식해 자동으로 앵글과 동선을 제어하며, 음악방송·현장 공연 등에서 유용한 자동촬영 기술로 참관객들의 높은 관심을 끌었다.



AI 입체 아바타 생성

로봇촬영시스템 시연

1층 Hall A	3층 Hall C	3층 Hall D
음향 & 조명관	방송·전송 및 미디어관	방송장비 및 제작관

공간 제약 없는 입체음향, 지상파 UHD 직접수신 시연

'사운드360' 입체음향 체험관에서는 바이노럴 기술을 기반으로 한 헤드폰·이어폰 환경의 몰입형 3D 오디오 콘텐츠를 OTT 시청자 중심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시청자들은 물리적 공간의 제약 없이 실감나는 청취 경험을 할 수 있었다.

또한 UHD KOREA는 지상파 UHD 방송 직접수신 시연과 수신 방법 안내를 통해 UHD 수신 환경에 대한 대중 이해를 높였으며, KBS 송신플랫폼국은 UHD 방송 콘텐츠의 압축률 변화에 따른 화질 비교 체험을 제공해 기술적 기준에 따른 품질 차이를 설명했다.



'사운드360' 입체음향 체험관

ATSC 3.0 기반의 차세대 방송 부가서비스도 소개

미디어출력은 ATSC 3.0 부가서비스 영역에서 RTK 기반 초정밀 위치정보 서비스, TPEG 교통정보, 재난경보, 데이터캐스팅, 모바일/다채널 방송 시연 등을 통해 KBS가 추진 중인 차세대 방송서비스의 방향성과 실현 가능성을 제시했다. 특히 RTK+TPEG 연동 서비스는 재난 대비와 교통 분야의 융합 가능성 측면에서 높은 관심을 받았다. 📡



ATSC 3.0 모바일, 다채널, 데이터캐스팅 서비스Worldwide